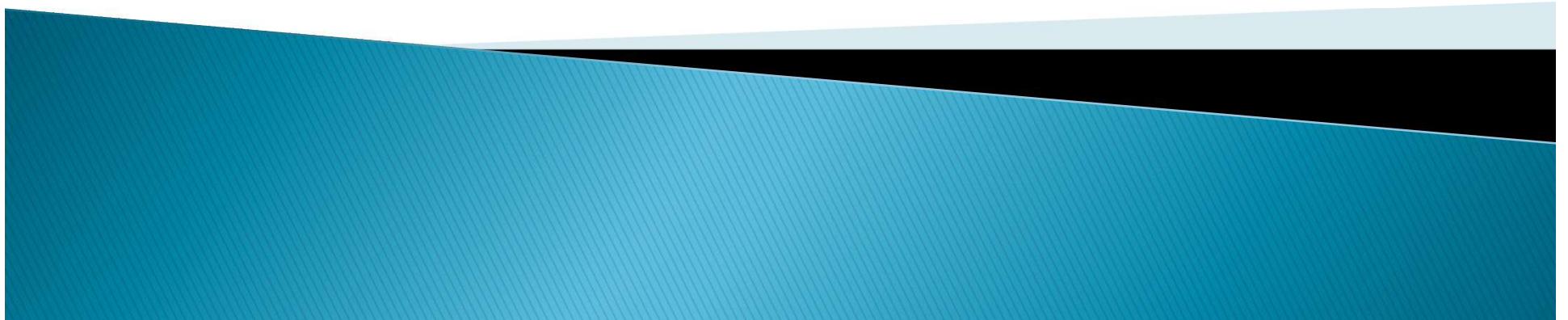


초기 기독교의 형성(A.D 30)

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은 세계교회사의 제 1장이다.
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 후 제자들의 성령강림 사건
체험과 교회의 탄생



최초의 교회들과 주교들(Bishop)

- ▶ 예루살렘 교회(최초의 교회)
- ▶ 안디옥 교회(이방선교의 중심지)
- ▶ 알렉산드리아 교회(문화와 상업의 중심지)
- ▶ 콘스탄티노플 교회(동로마제국의 수도)
- ▶ 로마교회(서로마제국의 수도)



기독교 형성 당시의 지중해 세계



예루살렘 교회(A.D 30-133)

- ▶ 제자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
- ▶ 예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수장
- ▶ 유대인들의 박해로 시리아 펠라로 이주 후 사라짐
- ▶ 박해의 이유 :
- ▶ 1. 유대교의 관습과 다르다.(ex, 할례금지, 율법준수)
- ▶ 2. 메시야 사상: 유대인은 지금까지도 메시야 대망,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야다.

오늘날의 예루살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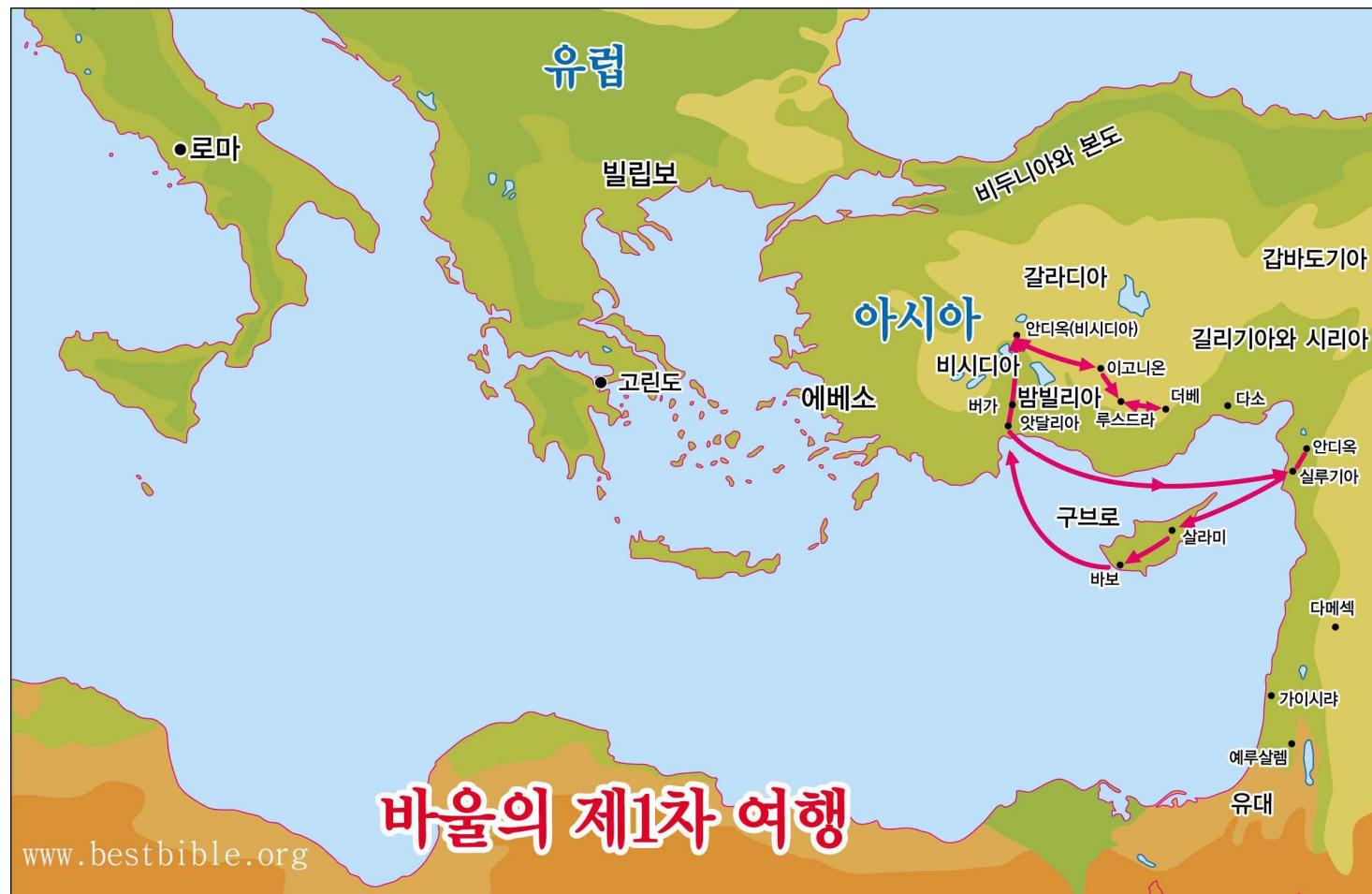
www.bestbible.org

시리아의 앤디옥 교회

- ▶ 사도 바울이 이방선교의 센터로 사용
- ▶ 최초로 크리스챤이라는 명칭을 들게 됨
- ▶ 초기 기독교 신학 논쟁에서 알렉산드리아 파들에 밀려 이단으로 정죄됨.
- ▶ (Ex, 아리우스, 네스토리우스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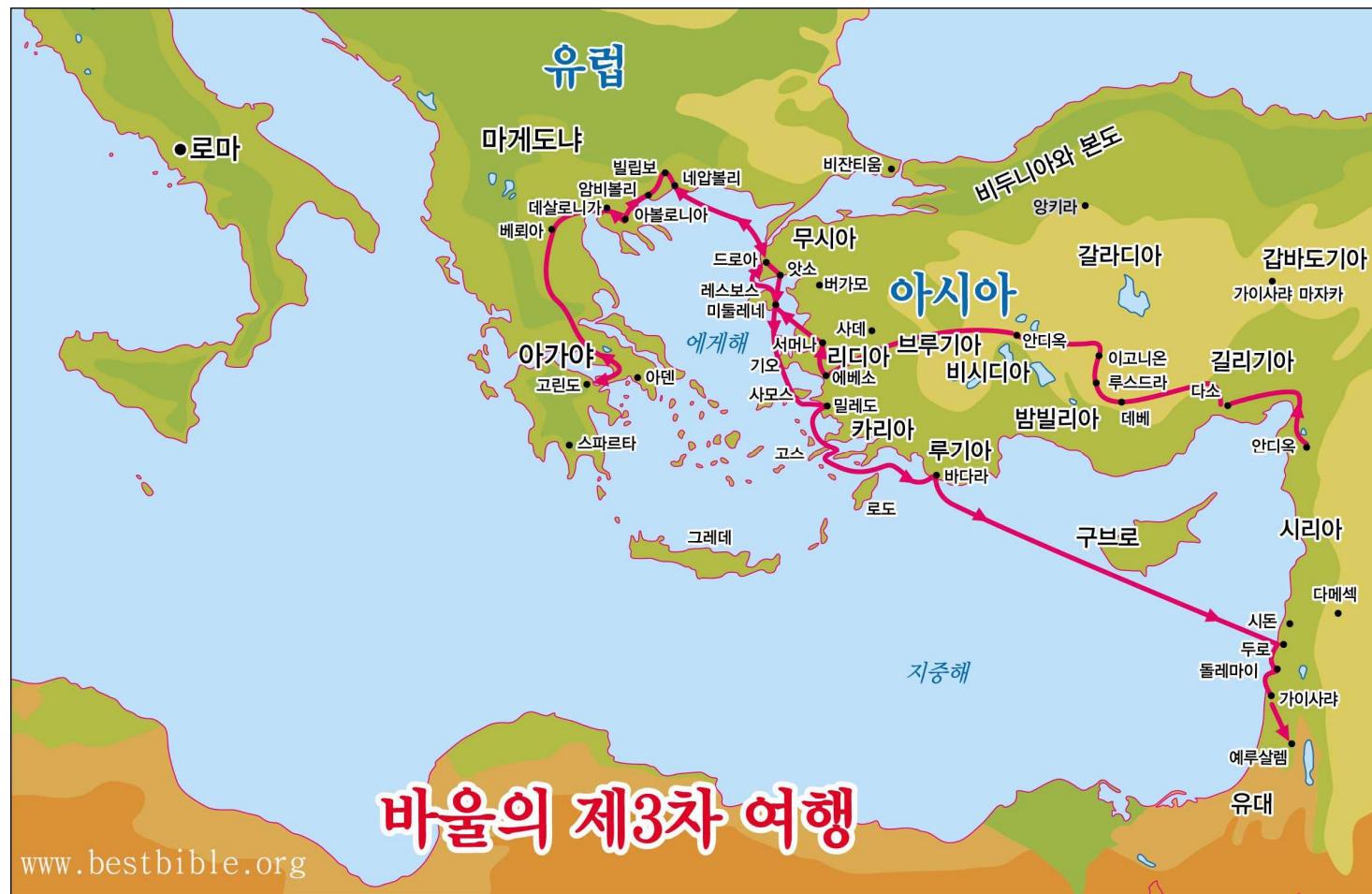
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



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



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



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



알렉산드리아 교회

- ▶ 북아프리카의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
- ▶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 정복을 기념하기 위해 세움
- ▶ 고대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서관을 세움(1만권)
- ▶ 초대교회 신학 논쟁에서 안디옥에 승리하여 기독교의 삼위일체론과 기독론 정립



콘스탄티노플 교회

- ▶ 동로마제국의 수도로 오늘날 이스탄불
- ▶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자신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인공적 도시 건설
- ▶ 동방정교회의 중심지(기독교의 제 1차 분열, 1054)
- ▶ 동방정교회의 총대주교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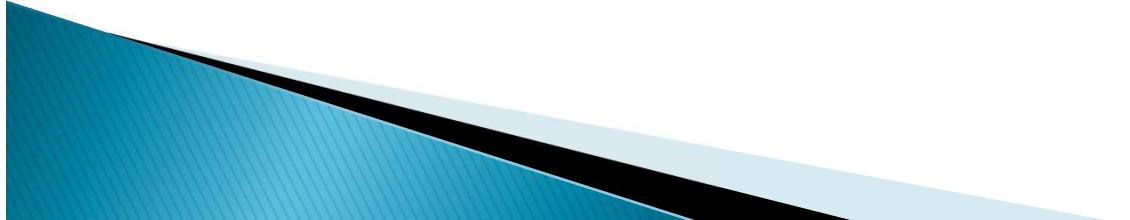
로마 교회

- ▶ 서로마제국의 수도
- ▶ 서로마제국의 멸망 후 제국의 행정권 장악
- ▶ 베드로와 바울이 선교하다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한 곳.(A.D 62)
- ▶ 이런 이유로 로마 주교가 이후 교황으로 등극하여 로마 가톨릭의 중심지 됨(성 베드로 성당, 바티칸)



결 론

- ▶ 초기의 5개의 교회들은 인접 지역의 교회들을 다스림
- ▶ 주교(Bishop)이 교회들의 수장
- ▶ 초기에 5개의 교회들은 집단지도체제적 성격(Collegeallity)
- ▶ 그 후 점차 로마 교회가 우위성을 주장하고 교황(Pope)이 됨
- ▶ Primus inter pares(동등한자 가운데 첫번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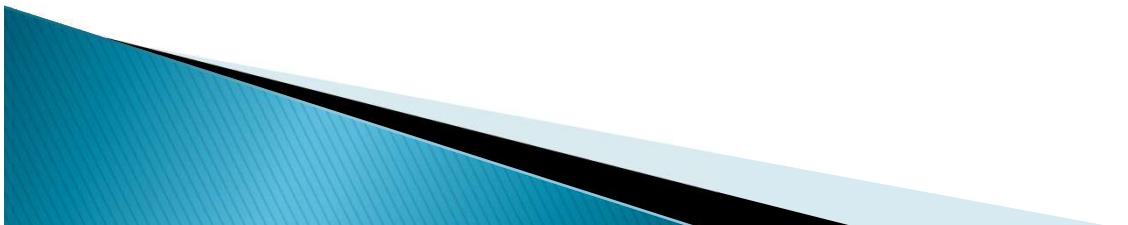
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

- ▶ 1. 유대인들의 박해
- ▶ 2. 로마 제국의 박해



유대인들의 기독교 박해

- ▶ 박해의 이유 :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신성모독으로 간주
- ▶ 예수를 메시야로,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.



로마 제국의 박해

- ▶ 1. 직접적 원인
- ▶ 기독교의 만민평등사상과 로마 제국의 황제숭배사상의 충돌로 제국의 정치적 질서의 혼란
- ▶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노동력을 뒷받침하는 노예의 해방은 용납할 수 없음
- ▶ 그러므로 에드워드 기본의 <로마제국 쇠망사>는 로마제국의 멸망을 기독교로 규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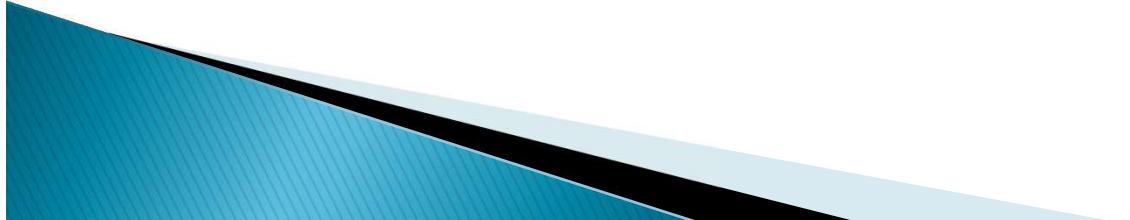
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의 빛미

- ▶ 기독교를 저급한 종교로 단죄
- ▶ 1. 기독교는 근친상간의 종교다.
(형제, 자매 호칭에 대한 오해)
- ▶ 2. 기독교는 식인의 종교다.
(성만찬에 대한 오해)



로마제국의 박해의 결과 1

- ▶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다수의 기독교인들의 순교
- ▶ 기독교인들을 원형경기장(콜로세움)의 사자밥이나 야간경기의 기름의 사용
- ▶ 그러나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성장
- ▶ 터툴리안 “기독교는 피를 먹고 사는 종교다”



속사도 교부들의 등장

- ▶ 1. 속사도 교부들의 등장
- ▶ 소아시아의 이그나티우스, 폴리캅, 파피아스
- ▶ 로마의 클레멘트와 헤르마스
- ▶ 알렉산드리아의 바나바



변증가들(Apologists)의 등장

- ▶ 기독교를 박해하고 저급한 종교로 매도하자 기독교신학을 변호하는 변증가들이 등장
- ▶ 대표적 변증가 순교자 저스틴(Justin)



순교자 저스틴의 주장

- ▶ 이교도와 기독교의 복음이 어느 정도 공통지반 (Common ground) 혹은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.
- ▶ 희랍철학의 로고스가 이미 구약의 족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나타났고,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육신, 이주장에 의하면 소크라테스, 플라톤, 스토아 사상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.
- ▶ 변증론에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(식인, 근친상간)에 대해 논박

터틀리안

- ▶ 예루살렘과 아덴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?
- ▶ 성경과 희랍철학의 접촉점을 인정하지 않음
- ▶ 복음과 기독교의 우월성 주장



이단들의 도전

- ▶ A.D 100-300sus 시기는 이단들이 복음과 교회를 위협
- ▶ 대체로 기독교적 요소들을 어느 정도 내포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으로부터 빗나간 가르침을 지님
- ▶ 외부적인 적보다 교회를 더욱 위협한 것은 내부적 이단들이었다.



1) 영지주의(Gnosticism)

- A. 기독교적 요소 + 헬라철학(플라톤주의) + 점성
술 +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= 혼합종교
- B. 비밀스런 지식(Gnosis)을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
바, 이 지식의 핵심은 몸과 물질 세계는 악하고,
영혼과 영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는 이원론적 사고
- c. 결국 기독교의 주요 신앙인 창조신앙, 성육신, 부
활신앙 등을 위협
- d. 금욕주의와 방탕주의로 흐름(육체 경멸)
- e. 가현설 주장.



2) 마르시온(Marcion)

- ▶ 소아시아 출신, 137년경 로마에서 두각, 영지주의 일파
- ▶ 기독교를 유대교적 뿌리로부터 떼어내고, 그리스 사상과 융화.
- ▶ 교회를 따로 설립하고 이 교회의 경전으로 바울서신(10개)과 누가복음만을 제시(구약과 기타신약배제)
- ▶ 구약의 창조자, 섭리자, 심판주를 경멸하고 바울의 복음만을 강조
- ▶ 2세기말경 사라짐

3) 몬타니즘

- ▶ 성경 계시 이외에 성령의 직접적 계시 주장
- ▶ 시한부 종말론 주장: 소아시아의 프리지아에 하늘 나라가 임함
- ▶ 높은 윤리적 기준요구, 신약성경이 주장하는 모든 윤리적 요구축소
- ▶ 이 운동은 성령의 카리스마가 약화되고 제도화되어 가는 고대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남

4) 군주신론

- ▶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다가 그리스도의 인성을
상실
- ▶ 사벨리아니즘 = 양태론(가면설)주장



교회의 응전 1. 신앙규범의 확증

- ▶ 영지주의와 군주신론에 대항하여 신앙규범 (Regula Fidei)를 만듦. 신앙규범이란 전통으로 사도들로부터 물려 받은 유산
- ▶ 사도신경(the Apostles' Creed) “나는 하나님을 믿는다” 로마신경에서 유래한 것으로 세례시에 사용된 신앙의 요약적 진술. 특히 삼위일체론과 교회 최후심판에 대한 진술이 들어있음
- ▶ 니케아-콘스탄틴 신조 = 삼위일체론
(Una substantia, tres Persone)
- ▶ 칼케돈 신조 = 기독론(vere Deus, Vere Homo)

교회의 응전 2.감독들의 권위강조

- ▶ 몬타니즘에 대항하기 위함
 - ▶ 사도적 전승인 복음을 확고히 붙잡고, 사도들의 뒤를 잇는 감독들의 권위를 확보
 - ▶ 키프리안 “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”
-
- ▶ 250년경 로마의 주교의 글에 의하면 로마시에는 46명의 사제 7명의 집사, 7명의 부집사, 42명의 조수, 52명의 악귀추방인, 독경인, 문지기, 1500명 이상의 과부와 걸인들이 있었다.

교회의 응전 3. 신약성경의 경전화

- ▶ 마르시온에 대항하기 위함
- ▶ 정경의 확립: 정경(cannon)은 “규칙”, “고정된 기준점”이란 뜻으로 그리스도교 내에서 정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서
- ▶ 성경이란 구약을 의미하였으나, 점차 신약이 형성되어 367년 아타나시우스 회람서신에 지금과 같은 27권
- ▶ 정경 확립의 기준
 - ▶ 1. 정경자체의 권위(성경은 스스로 결정한다)
 - ▶ 2. 사도적 저작, 3. 그리스도의 증언 여부



